



게티이미지뱅크

디카·구제... 빈티지에 꽂힌 10대

Cover Story

10대의 소비 트렌드



Z세대의 놀이터로 뜨는 동묘.

대경DB



국가공인 **매경 TEST**

학생부 기재 가능 경제경영이해력시험

“온 동네 중고거래 플랫폼을 다 뒤져서 2002년식 디지털 카메라를 구했어요. 지금 갖고 있는 휴대폰 카메라 화질이 훨씬 좋은 편이지만 구형 카메라 사진에만 담기는 몽글몽글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디지털 카메라가 요즘 10·20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화질이 낮고 빛 번짐 현상 때문에 흐릿하게 나오는 사진이 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하고 함께 자란 세대에게 색다른 매력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서울 동묘 앞 구제시장에서는 빈티지 제품을 둘러보는 청소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동묘 구제습 방문’ ‘동묘에서 예쁜 옷 건지기’ 같은 후기가 넘쳐납니다.

과거 동묘는 노인들이 주로 찾는 장소였지만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선 ‘저렴한 가격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빈티지 제품을 발굴할 수 있는 보물섬’으로 통합니다. 빈티지 의류뿐만 아니라 필름 카메라, 카세트 테이프, 옛날 텔레비전, LP판 등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물건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노스탤지어(nostalgia·향수)가 Z세대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스탤지어란 지나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뜻합니다. 특이한 것은 과거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앞장서서 빈티지나

뉴트로(New+Retro) 같은 유행을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시간이 흘러도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아이템들에 매력을 느낍니다.

Z세대가 이끄는 노스탤지어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관찰됩니다. 2000년대 감성과 Y2K 패션이 유행하면서 ‘노스탤지어 경제’라는 단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최근 미국, 영국 등 10·20대 사이에서 ‘덤폰(Dumb Phone)’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반대인 멍청이폰을 뜻하는 덤폰은 전화, 문자 메시지에 위치정보 시스템(GPS), 음악 재생 등 기본 기능만 갖춘 구형 피쳐폰을 뜻합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만 280만대 이상의 피쳐폰이 판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키아 피쳐폰을 생산하는 HMD글로벌은 최근 수요 증가에 발맞춰 기존에 단종됐던 모델을 재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카메라 기업(니콘·소니·캐논 등) 모임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CIPA)의 지난 20년간 디지털 카메라 판매액을 분석해보면 최근 3년 새 판매금액 증가가 눈에 띕니다. 2008년 2조1640억엔으로 정점을 찍었던 판매액은 2020년 4201억엔까지 근 두박질했지만 3년 전인 2021년부터 증가세입니다. 2021년에는 16.4%, 2022년에는 39.3%, 2023년에는 4.9% 판매액이 늘었습니다. 김혜순 기자·김도연 인턴기자

“김천? 김밥천국?”… 진짜로 김밥축제 만든 김천

“김천? 김밥천국 아닌가요?”

경북 김천시에서는 다음달 26일 김밥축제를 개최합니다. 지역명이 국내 김밥 프랜차이즈 ‘김밥천국’의 줄임말과 같다는 점에서 착안해 축제를 기획했고 MZ세대 사이에서 흥미로운 발상이라며 기대를 끌고 있습니다.

‘성심당의 도시’로 통하는 대전에서는 오는 28일 대규모 빵축제가 열립니다. ‘빵쟁도시’ ‘대전으로 빵지순례’라는 타이틀까지 가질 만큼 유명한 대전의 빵문화는 지역 축제로 기획돼 전국 각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로컬 힙’이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로컬 힙이란 지역(local)과 감성을 의미하는 힙(hip)의 합성어로 특정 지역만의 색깔이 담긴 축제, 식품, 관광 등 로컬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지역 축제는 작년 대비 방문객이 20% 증가하면서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축제가 어떻게 젊은 층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일까요?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영향력에 기인합니다. SNS를 통해 누구나 특색 있는 장소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특정 지역의 이색적인 문화가 눈길을 끌기 시작하면 금세 트렌디하고 힙한 것으로 모두에게 인식됩니다. 고유하고 특색 있는 지역 콘텐츠에 유행하는 밈을 활용한 릴스, 재미있는 SNS 게시글을 통한 참신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등을 통해 MZ세대에게 지역 축제는 멀기만 한 따분한 이벤트가 아닌, ‘한번 찾아가볼까’ 하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지자체들의 숏폼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축제 집객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울산의 웅기축제 홍보 영상은 비대면 온라인 회의를 경험했던 상황을 콘셉트로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가 360만회를 넘었고, 양산시청이 제작한 양산국화축제 홍보 영상은 유행하는 쇼츠 영상을 패러디해 조회 수 117만회를 돌파했는데요. 쇼츠 영상으로 흥미를 느낀 시청자들이 축제에 찾아와 방문객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젊은 층들은 지역 축제가 아니더라도 ‘지역 자체’에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지역 축제를 넘어 지역 자체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굿즈부터 프랜차이즈 식품, 옷까지 제작해 지역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트리트웨어 편집숍 이플릭은 로고에 대구 지역번호 053과 DAEGU를 넣은 티셔츠를 매년 완판시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지자체들은 지역 캐릭터로 디자인한 이모티콘이나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로컬 힙을 담은 제품들이 이제 해당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추세입니다.



소곤소곤
우리들 이야기

‘로컬 힙’ 열광하는 청소년
지역축제 주소비층 부상
지자체 SNS 홍보도 한몫
축제는 물론 굿즈도 인기
지방소멸 대안으로 주목



경북 김천시가 개최하는 ‘김천 김밥축제’ 포스터.

김천시청



스트리트웨어 편집숍 이플릭 브랜드의 ‘대구 티셔츠’.

이플릭

로컬 브랜딩, 로컬 힙 열풍은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지목되며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리서치앤드마켓 조사에 따르면 지역 밀착형 ‘하이퍼 로컬 서비스’ 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해 2027년 3조63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MZ세대의 반응을 끌어낼 숨은 매력을 찾고 그 요소들을 부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 축제 활성화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내 관광 자원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장혜린 인턴기자

경제공부 필수품
은-오프라인
서점서 만나세요



회장
발행·편집·인쇄인
장승준

등록번호 : 서울.다50736
발행간격 : 격주간
발행소 : 04627 서울 중구 퇴계로 190 매경미디어센터

경제경영연구소 이매일
구독 문의
광고 문의

teen@mk.co.kr
(02) 2000-2383
(02) 2000-2200

“R의 공포 잠재위라” ... 파월, 예상 깨고 ‘빅컷’



꼭 알아야 할 최신 뉴스

해고폭풍 직감한 파월... 침체 차단용 ‘빅컷’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4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 인상 정책을 끝내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해석됩니다. 특히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면서, 연준이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도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으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는 2.00%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연준은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를 4.75~5.00%로 낮췄으며, 올해 말까지 추가 인하로 금리가 4.4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조

▶ NIE 준비하기

1.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2. 금리 인하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치가 고용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실업률 전망을 4.0%에서 4.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 미국 국채, 금, 국제유가 등의 자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매일경제 9월 19일자 A1면 보도

SNS 규제 압박에 ... 꼬리 내린 인스타

인스타그램이 뒤늦게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10대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해 개인 메시지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감독 권한이 강화되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먼저 시행되며, 한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이러한 자율규제는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나온 대응

▶ NIE 준비하기

1. 청소년 규제를 시행 중인 다른 빅테크 서비스에 대해 조사해봅시다.
2. SNS 청소년 규제의 장단점에 대해 토론해봅시다.

입니다. 특히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쉽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매일경제 9월 18일자 A1면 보도



핵심!

4.4%

연준이 상향 조정한 실업률 전망치

359만 명

올해 2월 기준 국내 20대 미만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

8,881억 원

올해 1~7월 동안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차라리 폐업”... ‘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금리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나홀로 사장님’ 수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습니다. 이 감소세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졌으며,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높은 금리와 물가, 그리고 소비 침체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됩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매출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자와 인건비, 재료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당시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상환 시기를 맞아 고금리로 인

▶ NIE 준비하기

1.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2. 자영업자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해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서울시 상권분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점포 수는 6290개로 코로나 초기보다도 많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도 올해 1~7월 8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했습니다. 매일경제 9월 18일자 A12면 보도



진도 대파 버거·남해 마늘 치킨... '로코노미'도 뜬다

〈로컬+이코노미〉



한국맥도날드가 지난해 한국의 맛 프로젝트 차원에서 출시한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 캠페인.

한국맥도날드

“바삭한 식감에 대파 크림의 맛이 깊고 진하게 느껴지네요. ‘한정판’이니 만큼 판매가 종료되기 전에 다시 맥도날드를 찾아야겠어요.” 맥도날드가 지난해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를 다시 출시하자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진도 대파 크림 크로켓 버거는 국내 식재료를 활용한 ‘한국의 맛(Taste of Korea)’ 프로젝트 메뉴로 지난해 7월 처음 나와 조기 품절됐고, 두 달 후인 9월 재출시돼 280만개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으깬 감자와 진도 대파가 박힌 크림치즈로 속을 채운 크로켓이 패티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곶내치킨의 ‘남해마늘바사삭’은 출시 두 달 만에 최고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스타벅스는 공주 밤, 문경 오미자, 광양 황매실을 활용한 시즌 한정 음료를 선보였고, 이디야커피는 충남 지역 특산물인 수박과 방울토마토를 활용한 생과일주스를 출시해 2주 만에 30만잔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로코노미(Loconomy)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로코노미는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특색을 활용한 비즈니스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젊은 세대가 로컬(지역 특색)의 불편함과 촌스러움을 오히려 ‘힙(Hip)’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역의 전통 가치를 소비하려는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로코노미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경험과 차별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MZ세대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1.6%가 로코노미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제품의 다양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습니다. 대부분 응답자가 로코노미 제품이 이색적이라 구매한다고 답했고, 특히 한정판 로코노미 제품에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색이 가미된 제품들의 독창성·진정성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로코노미 제품을 가치소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 근처 또는 온라인에서 로코노미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로컬의 가치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로코노미 트렌드는 세계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리서치앤드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로컬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9년 9730억달러(약 1269조 원)에서 2027년 273% 증가한 3조6343억달러(약 47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크로거(Kroger)는 매장 내 지역 상품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로코노미는 기업, 소비자, 지방자치단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특색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브랜드를 차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투명경영(ESG)과 같은 기업 이미지 제고와 인지도 상승에도 유리합니다. 소비자는 로코노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동시에 각 제품이 가진 독특한 지역 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박세윤 인턴기자

때론 촌스러운 지역 특색 오히려 ‘힙’하게 받아들여 가치소비 트렌드에도 맞아 로코노미, 지역경제에 활력 기업·소비자·지자체 윈윈



“개인 맞춤형 교육 가능” vs “비판적 사고력 저하”

AI 디지털 교과서 논란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 도입해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술을 접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AI가 학생들을 분석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를 말합니다.

정부는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디지털 기기 과의존 현상과 비판적 사고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찬성합니다

▶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 효과 향상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 학생들이 각자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는 개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AI는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줘 학습 효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 학습 속도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보다 집중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개인별 맞춤 학습 제공으로 확립된 전통 교육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 교육 격차 축소

디지털 교과서는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물리적 교재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화면 해설 및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위한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며, 필기가 어려운 특수 학생들을 고려해 편리한 조작 기능을 제공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는 “AI를 활용해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다양한 학생의 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튜터링 시스템이 실시간 학생 지원으로 보조교사의 역할을 해 특정 과목과 지역의 교사 부족 현상을 완화해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의있어요

▶ 비판적 사고 및 문해력 저하

전통적인 학습 방식인 독서와 쓰기 활동에 소홀해져 학생들의 문해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전자책과 디지털 콘텐츠는 종이책에 비해 집중력을 떨어뜨리며,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를 하는 대신 표면적인 정보 탐색에만 의존하게 하거나 이를 오락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교사가 생각하는 학생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영상 매체 과다 노출, 독서 소홀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의존도를 더욱 높여 비판적 사고와 문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AI의 답변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학습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

AI 디지털 교과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개인 정보 수집과 보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의 습관과 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반영해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보호할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지난 5월 AI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위한 교사 연수 준비 과정에서 교사 1만여 명의 성명, 소속 학교, 전화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암호 없이 유출됐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이전에 교육 현장에서 정보 관리 및 보호 시스템 구축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교육당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한 후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민성 인턴기자



1

전통 교육 방식의 한계 극복할 수 있을까

2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데 미치는 영향은

3

학생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는 어떻게

원하는 선택 유도하려면 ‘미끼’를 던져보세요

Q.

10월 연휴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가족 모두 여행 가는 건 찬성했는데, 가고 싶은 곳이 제각각이네요. 저는 바다가 보이는 강원도 리조트에 가고 싶은데, 엄마는 서울 도심 호텔 패키지를 하고 싶대요. 제가 몇 개의 여행지 대안을 만들어 가족에게 제시하고, 투표로 정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김나영 선생님의
쉬운 경제

결론부터 말하면 근사한 리조트 A, 도심 호텔 패키지 B, 두 개 대안만 제시하지 말고 A보다 살짝 못한 A-도 하나 더 만들어 세 개의 대안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었고, 주말에 파티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파티에서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두 친구 중 한 명과 함께 가려고 해요. 한 명은 나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스타일의 친구고, 다른 한 명은 나와 스타일 비슷한데 나보다 살짝 매력이 덜한 친구예요. 파티에서 주목받고 싶다면 어떤 친구와 함께 가야 할까요? 댄 애리얼리(Dan Ariely)는 이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A와 B 사진을 두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누가 더 매력적인지 물었어요. A를 선택한 학생과 B를 선택한 학생 수가 비슷했어요. 이후 A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약간 못생기게 만든 사진 A-를 추가했어요. A, A-, B 세 사진을 제시하자 압도적으로 A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고르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마찬가지로 B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약간 못생긴 B- 사진을 만들어 A, B, B- 세 사진을 제시하자, 압도적으로 B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하는 이가 많아졌죠.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A와 B를 비교해서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비교 대상이 생기자 달라진 거예요. 여전히 A와 B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A보다 좀 못생긴 A-가 끼어 있으니 어쩐지 A가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A-가 있을 때 A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76% 상승했습니다.

상품 A와 상품 B 중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는 상황을 생각해볼게요. A는 품질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싸고, B는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이 약간 떨어집니다.

품질 면에서는 A가 좋고, 가격 면에서는 B가

좋으니 두 상품은 서로에 대해 1승1패입니다. 우열을 가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중 상품 C가 눈에 띄었어요.

C는 B에 비해 가격이 좀 더 비싸고, 품질도 B보다 안 좋아요. 사진 실험으로 예기해보자면, C는 B-인 셈입니다. A와 B를 비교해서 고르려고 하는데, B보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는 C의 등장이 선택에 영향을 줄까요? 합리적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해요. 하지만 영향을 줍니다.

C는 A에 대해 1승1패예요. A보다 품질이 좋지 않지만, 가격 경쟁력은 있으니깐요. C가 B에 대해서는 2패입



게티이미지뱅크

니다. B보다 가격 경쟁력도 안 좋고, 품질도 안 좋으니까요. 여전히 A와 B를 비교할 땐 1승1패지만, 사람들 심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A와 C 사이에선 1승1패인데, B와 C 사이에서는 B가 2승이네. 그러니까 A보다 B가 낫군'이라고요. 사실상 고려 대상이 되면 안 되는 C의 등장으로 A가 아닌 B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을 미끼효과(decoy effect) 혹은 들러리 효과라고 해요.

주방가전을 만드는 미국 회사 '윌리엄스소노마(Williams Sonoma)'에서 가정용 제빵기를 처음 만들어 275달러에 내놓았어요. 출시됐을 때 사람들 반응은 싸늘했어요. 집에서 식빵을 만들어 먹으려고 275달러나 쓰느냐는 반응이었죠. 이 회사가 찾은 해결책은 처음 만들어진 제빵기보다 더 크고 비싼 제품을 만든 겁니다. 후속 제품은 429달러에 출시됐는데 그 후, 제빵기 판매가 2배가량 늘었어요. 그런데 잘 팔린 제품은 후속 모델이 아니라 처음 만든 제빵기였어요. 후속 제품이 이전 상품과 비슷하지만 약간 못한 미끼 상품 역할을 한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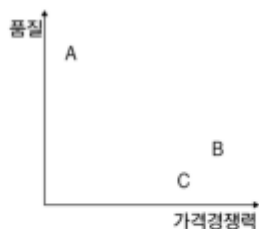
쉽게 내릴 수 없던 결론이 나도 모르는 순간 갑자기 해결됐다면 내 주위에 상품 C가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언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에 여러분이 여러 대안을 제안한다면 미끼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양정중학교 사회과 교사



시사용어 CHECK

미끼 효과 (Decoy effect)
두 가지 대안을 두고 무엇을 고를까 고민할 때, 제3의 선택지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쉽게 선호를 결정하는 심리적 현상. 대안 A와 B가 있을 때 A랑 비슷하지만 살짝 못한 A-를 함께 제시하면 A가 돋보이고, B랑 비슷하지만 B보다 살짝 못한 B-를 함께 제시하면 B가 돋보인다.



돈 어떻게 맡아 굴리느냐... 금융기관별 역할 달라



매경DB



김형리의
금융의 역사

우리가 이용하는 금융기관들이 무엇이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금융기관이란 우리가 돈을 맡기거나 빌리거나 사용할 때 도와주는 곳을 말한다.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중앙은행: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전체의 돈을 관리하는 아주 큰 저금통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만들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돈의 양을 조절한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물건 값이 올라가니까, 그럴 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사람들이 돈을 아껴 쓰도록 만들기도 한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리를 낮춰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쓰도록 도와준다.

상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들은 상업은행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같은 곳이다. 여기에 돈을 저금하면 은행이 그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이자를 조금씩 준다. 또한 집을 사거나 큰돈이 필요할 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처럼 은행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을 맡기거나 빌리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다.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은행이다. 큰 회사들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사업을 키우고 싶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한국산업은행 같은 특수은행이 이들을 도와준다. 중소기업은행은 작은 회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다.

저축은행

저축은행은 상업은행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운영된다. 하지만 여기서 돈을 저금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용돈을 빠르게 모으고 싶다면 저축은행에 저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도 한다.

증권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회사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주식은 회사의 일부를 사는 거고, 채

권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중에 이자를 받는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가 주식을 팔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살 수 있다. 회사가 잘되면 주식 값이 올라 돈을 벌 수 있다.

보험회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회사는 다치거나 병원에 갈 때 큰돈을 대신 내주는 곳이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보험회사가 그 돈을 대신 내줄 수 있다. 미리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그 돈을 다시 받는 식이다.

신용카드회사: 삼성카드, NH농협카드 등

신용카드회사는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신용카드를 쓰면 돈이 없어도 장난감이나 음식을 사고,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된다. 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포인트가 쌓이거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핀테크회사: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회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업체다. 카카오페이나 토스를 쓰면 스마트폰으로 쉽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친구에게 용돈을 보내고 싶을 때 스마트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다.

협동조합 금융기관: 신협, 농협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이다. 신협, 농협 같은 곳이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준다.

이렇게 다양한 금융기관이 우리 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나라 전체의 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은 우리가 돈을 맡기거나 빌리는 걸 도와준다.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처럼 돈을 투자하거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기관도 있다. 핀테크회사는 스마트폰으로 금융 활동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협동조합 금융기관은 사람들이 서로 돕게 해준다. 금융기관들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서로 협력해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견고하게 유지시켜주고 있다.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고객관리센터



시사용어 CHECK

주식
회사의 소유권을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를 사면 그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게 된다.

채권
정부·기업이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빚 문서로,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 원금·이자를 받는다.

1940년 광복군 창설, 연합군의 일원으로 싸워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30년간 일본이 우리 조국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박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하여 왔다...

-김구, 한국광복군선언문 중 일부



조인 강사의
한국사 탐방

1940년 9월 17일, 중국 충칭에서 김구 주석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지청천 사령관 이하 광복군 임원, 중국 국민당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광복군총사령부성립전례식'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 '한국광복군' 창설이 국내외적으로 공표되는 순간이었다.

한국광복군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 일본군이 중국 내륙으로 거세게 쳐들어왔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일본군에 밀려 계속 후퇴하는 상황이었고, 전시체제에 돌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중국 정부와 함께 충칭까지 후퇴하였습니다.

1940년 5월 김구는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만나 광복군 설치에 대한 승인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충칭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체제를 정비하면서 자신의 군대, 한국광복군을 준비합니다.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과 참모장 이범석은 대표적인 독립군이었던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발행된 신한민보는 '광복군 조직은 3·1운동 이후 처음 있는 큰 사건'이라며 '힘이 있으면 힘을, 돈이 있으면 돈을 내자'며 모금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1941년 중국 내륙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무장단체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중국 공산당 지역인 연안으로 이동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놀란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에 '한국광복군 행동준수 9개항'(1941년 10월)을 강요하여 이때부터 광복군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으로 미국이 참전하면서 중국 정부의 한국광복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후방에서 훈련만 계속되는 상황에 실망한 광복군 지청천 사령관이 큰 화를 내며 자신의 책임을 였던 사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광복군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1943년 6월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과 영국군 동남아 전구 총사령부 대표 콜린 매켄지 사이에 상호군사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광복군은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9명의 공작대를 선발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 파견하였습니다. 영국군 각 부대에 배속된 광복군은 임팔 전투를 비롯해 비센푸르, 따파플, 만달레이 등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하였고, 1945년 7월 일본군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거의 2년 여 동안 영국군과 함께 대일항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기 위해 편성한 한국광복군의 소임을 최전선에서 구현한 '유일한' 부대이기에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큽니다.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활약한 광복군.

국가보훈처

광복군은 미국과 어떤 작전을 계획했나요?

광복군은 미군과의 군사합작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미국의 압력을 통해 '광복군 행동준수 9개항'을 폐기하고 결국 독자적인 지휘권을 확보했습니다. 1944년 5월 광복군 김학규는 미국 제14항공대 사령관 셔놀트 장군과 협의하여 6개 항의 공동작전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 전략정보처(OSS)가 광복군 훈련을 실시하고 이들을 한반도에 침투시켜 첩보활동을 실시한다는 이 계획은 '독수리 작전'이라고 불렸습니다. 훈련을 지휘했던 미군 도노반 소장은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적 일본과 싸우는 공동작전이 시작된다'고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백범일지). 김구 주석은 연합군의 한반도 상륙 시 임정 요원의 동반을 미국에 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의 필리핀 공격 시 맥아더가 필리핀 대통령, 고위 관리들과 동행함으로써 얻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은 두 단계로, 광복군 대원들을 잠수함으로 국내(서울, 부산, 평양, 신의주, 청진)에 진입시켜 중요 지점을 파괴하거나 점령하는 작전이 1단계였습니다. 2단계는 광복군을 비행기와 선박으로 상륙시켜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항복 소식에 급해진 김구와 임시정부는 급히 '국내정진군'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내로 보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의 군대가 가장 먼저 조선에 도착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긴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8월 18일 이범석 지대장을 비롯한 장준하, 김준업 등 광복군 20여 명은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의 입국 거부로 다음 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강남대성학원 강사·전 이화여고 역사교사



- 1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의 이름은?
- 2 광복군이 영국군과 합동 작전을 수행한 지역은?
- 3 미군과 준비한 광복군 국내진공작전 이름은?

한번쯤은... 가을 섬진강을 거닐어봐야 한다

전남 곡성

사람들은 이 고장을 오컬트 호러무비의 배경으로 기억한다. "뫼이 중헌디?"라는 대사가 유행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곳이 아름답고 인심 넉넉한 고장이라는 사실이다. 영화와는 달리 한없이 평화롭고 환한 곳, 바로 전남 곡성이다.

광주와 나주, 담양, 남원 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싣고 굽이굽이 흐르는 섬진강과 도립사 계곡, 압록유원지, 동악산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물론 기차마을, 장미축제, 섬진강 천문대, 조태일문학관 등 테마 관광지와 명소가 즐비하다. 빼어난 음식 맛은 덩이다.

이른 봄에는 매화와 산수유가 겨울의 무채색을 벗기고 화려한 색을 입힌다. 봄이 더 무르익으면 섬진강변을 따라 끝없는 벚꽃이 강물처럼 흐르고, 늦봄에서 초여름엔 철쭉이 장관이다. 늦여름에는 자줏빛 배롱나무꽃이 백백한 녹음 사이에서 보석처럼 빛나고, 가을엔 메타세쿼이아와 단풍의 고즈넉한 풍광이 첼로 협주곡처럼 너르게 퍼져나간다. 얼어붙은 섬진강 위로 눈이 쌓이면 하얀 침묵 속에서 얼음장 아래의 고요한 물소리를 듣는 기쁨도 있다.

심리학자인 폴 퀴네트는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낚시를 해야 할 때가 온다'는 책을 썼다. 자살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퀴네트는 절망과 우울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낚시를 치료법으로 제시한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낚시터에서 자란 나는 30년 넘게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 詩 - 물속에서 건진 말들'이라는 낚시 산문집도 썼다. 그 책 머리말에 이렇게 썼다. "낚시를 하면 복잡한 삶이 단순해지고 풍요로워진다.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이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삶 전체를 발전시켜나간다. 원고 마감에 쫓길 때는 '빨리 원고 완성해서 낚시 가자' 하는 생각이 마감의 동력이 되고, 낚시를 하다 보면 일상으로 복귀해야 할 부담감을 느낀다. 그렇게 낚시가 삶을 이끌고 간다. 낚시를 위해 열심히 살고, 낚시를 하다 보면 또 삶이 절박해지는 것이다"라고.

늦여름에서 늦가을까지는 섬진강 쏘가리와 꺾지 낚시의 최적기다. 피약별이 수그러들고, 뜨겁던 강물도 좀 식으면 쏘가리와 꺾지들이 동면을 앞두고 활발하게 먹이활동을 시작한다. 우리 고유의 민물고기들로 강물에 몸을 담고 고인조미끼를 쓰는 루어낚시로 잡는다. 낚시에 걸린 쏘가리가 몸을 뒤척여 내 앞에 오는 순간, 쏘가리의 아체와 햇빛이 부딪치며 강물이 온통 금빛으로 변색하는 광경을 보면 온몸이 나른해진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게 루어낚시의 장점이다. 자연 속에서 신선이 되어보고 싶다면 섬진강에서 루어낚시를 해보라. 폴 퀴네트 박사의 처방대로 낚시에는 자유의 힘이 있어 낚시를 통해 우리는 잠시라도 힘겨운 세상살이를 잊을 수 있다.

강물에 몸을 담고 낚시를 하다 보면 금방 허기가 진다. 곡성은 식도락의 숨은 명소다. 섬진강이 내어주는 쏘가리, 은어, 다슬기, 참게, 재첩 밥상이 입맛을 돋운다. 곡성 신기리의 '순자강 민물매운탕'은 민물 매운탕과 참게탕, 참게장, 다슬기 수제비를 잘하는 집이다. 압록유원지 근처 '청솔가든'은 은어조림과 튀김, 참게 매운탕이 주력



이병철 시인의 여행 스토리

인데 인기 메뉴는 따로 있다. 참게를 절구에 빻아 살만 골라낸 것을 채소와 함께 얼큰하게 끓여낸 참게 수제비다.

물에서 나는 것 못지않게 땅에서 나는 것도 풍성하다. 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흑돼지와 토란을 들 수 있다. 흑돼지의 경우 고추장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굽는 석쇠구이 맛이 끝내주는데, 가장 유명한 집이 '석곡식당'이다. 이 집이 맛에서는 독보적인데, 가격이 비싸다. 석곡식당 문앞에서 발길을 돌린 사람들이 찾는 곳이 '돌실숯불회관'과 '우리식당'이다. 훨씬 합리적인 가격으로 석쇠구이를 넉넉히 먹을 수 있다. 여름엔 도립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계곡 평상에 앉아 백숙을 시켜 먹으면 별천지다. 여름에서 가을로 계절이 바뀌는 지금은 압록유원지가 더 높기에 좋다. 풍광이 수려한 섬진강변에 맥을 박을 수 있는 사이트부터 매장, 화장실, 식당 등 무료 노지캠핑을 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캠핑을 하다가 어두워지면 곡성 섬진강천문대에 가 별을 관측하는 것도 큰 즐거움이다. 곡성 출신으로 한국 현대 서정시의 독자적인 한 길을 개척한 조태일 시인의 자취를 찾아 조태일문학관에 가거나 마천목 장군과 도깨비살의 신비한 설화가 있는 도깨비마을에 가보는 것도 또한 곡성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다.



여행정보

서울로 올라가기 전 곡성 읍내 '소머리국밥'에서 국밥 한 그릇으로 속을 채워보라. 가게 이름도 따로 없이 상호가 그냥 '소머리국밥'이다. 남원, 대강, 신기리쪽에서 곡성읍으로 가는 길에는 가을에 특히 멋진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다. 그 길 느릿느릿 지나 이 집 국밥까지 먹으면 가을 곡성 여행은 비로소 완성된다.



온실가스로 꽉 찬 지구...탄산수처럼 터질라



신진화 박사의
신비한 지구과학

한여름이었다. 갈증이 나서 하루 종일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탄산수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갑자기 탄산수가 분수처럼 터져 나왔다. 고요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탄산수를 따기 전에 물병을 흔들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다급히 식탁 위로 흘러내린 물을 행주로 닦는데, 물병에 적힌 경고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온도가 높은 경우, 내용물이 넘칠 수 있습니다.'

탄산수는 물에 이산화탄소(CO_2)를 압력으로 녹인 물이다. 차가운 물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녹일 수 있지만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산화탄소가 덜 녹는다. 방 안의 높은 온도로 인해 탄산수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물에서 빠져나와 병 안의 빈 공간을 가득 채웠을 것이다. 병뚜껑을 열자 병 안의 높은 기압 때문에 탄산수를 흔들어 탄 것처럼 물이 철철 넘쳐 흘러나온 것이다. 만약 탄산수를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했다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더 많이 녹아 코끝이 찡할 정도로 청량한 탄산수를 맛볼 수 있었을 것이다. 병 밖으로 흘러 넘치는 탄산수를 보다 그것이 오늘날의 해양과 대기의 모습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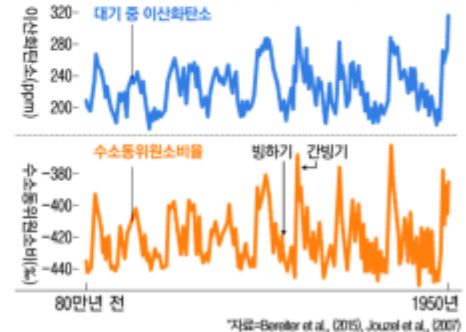
집의 구조를 거실, 화장실, 주방, 침실로 나누듯이, 지구에서 탄소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공간을 대기, 육상 생물, 해양, 그리고 암석으로 나누어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의미한다.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인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나 인류 활동이 없더라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자연적으로 상승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대기와 육상 생물, 그리고 대기와 해양 간 탄소 교환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할 수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자연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탄소 저장소는 해양이다. 이는 남극 빙하코어로 복원한 지난 80만년 동안의 남극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극 온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80만년 동안 약 10만년을 주기로 8번의 추운 빙하기와 상대적으로 온화한 간빙기가 반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시기 지구 평균 온도 차이는 약 4~5°C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남극 온도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80만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 농도는 평균적으로 180ppm에서 280ppm 사이 일정 범위 내에서 변동해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빙하기와 간빙기에 각각 다른 양상을 보였다. 빙하기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간빙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현상을 아주 단순하게 탄산수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빙하기에는 온도가 낮아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잘 녹아들어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한다. 반대로 간빙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해양에 덜 녹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80만년간 이산화탄소 농도 및 남극 기온 변화



산업혁명 이후 인류 활동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하게 됐다. 2024년 1월에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1850-1900년)에 비해 $1.45 \pm 0.2^\circ\text{C}$ 상승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이제는 자연환경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다. 지구 평균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만약 이산화탄소 농도 배출량을 줄이지 않고 계속 배출하게 된다면 지구 평균 온도는 점점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은 더욱 떨어지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나는 탁자 위에 있던 뜨거워진 탄산수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으로 더 이상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지 못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오늘날의 바다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 '차갑게 하여 천천히 개봉하여 드십시오.' 탄산수에 적힌 또 다른 경고 문구처럼 우리가 지구에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지구 온도가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고 지구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지난 80만년 동안 지구가 남극 빙하코어에 기록한 기후 기록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극지연구소 박사



- 1 더운 날, 탄산수가 터진 이유는?
- 2 빙하코어에 기록된 남극 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간 상관관계는?
- 3 탄소 저장소로서 바다의 역할을 생각해 봅시다.

음식 나눠먹던 추석이 소비 대목 된 이유



최병일 교수의 모든 것의 경제학

추석의 다른 말은 중추절(仲秋節)입니다. 다시 말해 추석은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유례없는 더운 날씨와 열대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습니다. 때아닌 늦더위로 추석이 전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무더위로 인해 추석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것은 사실이지만 명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날씨 탓으로만 돌릴 순 없습니다. 산업과 시대 그리고 문화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명절의 의미와 기능이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과 문화를 담고 있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산업과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그 의미와 풍속이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대략 60%가 "이번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명절이 더 이상 조상과 가족을 생각하는 전통적인 행사가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기간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거 동서양의 주요 명절은 대부분 생산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추석 역시 삼국시대 여성들의 길쌈놀이가 그 기원입니다. 여성들이 누에나 각종 식물에서 실을 뽑고 면직물을 생산하는 길쌈은 생활 필수품인 의복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같은 길쌈 대회를 마치고 나면 당연히 풍성한 음식이 준비됐고 대체로 이런 행사는 신이나 자연에 대해 감사하는 제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즐기는 일련의 과정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것은 사회의 번영과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지금과 같이 번성하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요인이 바로 협력과 공동체 활동인 것입니다.

산업이 성장하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분업과 교환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경제 시스템은 화폐 제도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즉각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대상들과 기꺼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폐가 발달하지 않았던 촌락 사회나 봉건 사회에서 공동체 내 분업과 봉사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과거 명절이나 축제

는 자족 경제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 활동과 소득 재분배 기능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많은 명절이나 축제 속에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베풀도록 유도하는 행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화폐 제도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 경제 시스템에서 과거와 같은 공동체 의식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성은 전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제 명절의 종교적·사회적 의미는 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현대 명절의 주된 경제적 역할은 생산성 증대와 구휼 활동보다 소비 촉진으로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매년 11월 말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는 원래 저소득층을 위한 자선과 구휼의 의미가 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요리를 먹고,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물건값을 할인했던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는 기업의 매출 증가와 재고 정리의 의미가 더 큼니다.

이처럼 현대 명절의 경제적 기능은 생산이나 분배 측면의 역할보다 '소비'를 촉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중심의 급여체계가 점차 보편화되면서 명절을 맞아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감소하고 있어 전만큼 넉넉한 명절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한 포털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10년 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급한 평균 추석 상여금은 65만원인데, 올해 기업들이 지급한 평균 상여금은 이보다도 적은 58만6000원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평균 임금이 상승했음에도 추석 상여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전처럼 명절을 맞아 증가한 구매력과 유동성으로 상품 시장 소비 진작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탄력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늘면서 명절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레저·여행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 지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과 시대가 변화하면서 명절의 경제적 역할 역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현명했던 조상들은 본인들이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했던 것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봤습니다. 이런 전통은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어떨까요? 강원대학교 교수



시사용어 CHECK

기준순환일
기준순환일은 경기의 확장 과 수축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생산·소비 등의 경제지표로 활용된다. 추석, 블랙 프라이데이가 대표적이다.



화폐 가치 떨어지면 실질이자율도 ‘뚝’



틴매경TEST
공부합시다

〈문제〉

아래는 A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보기〉 중 올바르게 해석한 것을 모두 고르면?

2023년 A국 주요 거시경제 지표

지표	지표값
시중 (명목) 이자율	4%
물가상승률	3%
실업률	5%

〈보기〉

- ㉠ 대출자가 부담하는 실질이자율은 1%이다.
- ㉡ 경제고통지수는 7%였다.
- ㉢ 1년 뒤에 수령할 52만원의 현재 가치는 50만원이다.
- ㉣ 화폐가치가 4% 하락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해설〉

- ㉠: IOI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것으로, 자금을 빌리는 사람의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뜻한다. 위 자료에서는 4%-3%=1%로 계산할 수 있다.
- ㉡: IXI 경제고통지수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하여 도출하는 지수로, 가계의 경제적 고통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위 자료에서는 3%+5%=8%로 나타난다.
- ㉢: IOI 52만원을 시중 이자율로 현재 가치화(할인)하면 50만원 [=52만원/(1.04)]이 된다.
- ㉣: IXI 물가상승률은 화폐가치 하락률로 해석할 수 있다. 위 자료에서 화폐가치는 3% 하락했다. 정답 ②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미래에 인출할 경우 저축한 액수보다 이자만큼 더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내가 지금 돈을 써버리는 대신 참고 기다린 인내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한 금액 대비 이자의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율은 우리의 경제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나 저축하는 사람들이 감소할 경우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면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여윈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축을 늘릴 것이며,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을 자제할 것입니다.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말고도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만기에 상환해야 할 원금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가령 1년 뒤에 100만원을 지급하는 채권이 채권시장에서 90만원에 판매되는 경우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연간 수익률은



매경DB

(100만원-90만원) ÷ 90만원=약 11%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을 통상 (채권)시장 금리(이자율)라고 부릅니다. 채권을 구매하려는 사람, 즉 자금을 기업에 공급 해주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는데, 이는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채권의 가격이 90만원에서 92만원으로 상승할 경우 수익률은 (100만원-92만원) ÷ 92만원=약 8%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시장 이자율을 이용하면 미래 시점의 돈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5%의 수익률로 100만원을 예금하면 1년 후 105만원 (=1.05 × 100만원)이 되는데, 이는 1년 후의 105만원의 현재 가치는 100만원 (=105만원 ÷ 1.05)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 이자율은 화폐가치가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명목(nominal)이자율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만원이라 하더라도 보통 올해에 살 수 있는 재화의 양보다 1년 후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줄어듭니다. 가령 올해 음료수 가격이 2000원일 경우 5개를 살 수 있지만, 내년엔 음료수 가격이 2500원으로 인상되면 4개밖에 못 사게 됩니다. 즉, 물가가 상승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것입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화폐의 가치 하락을 감안한 실질(real)이자율을 제시하였습니다. 피셔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아래의 관계식을 응용하여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화폐가치 하락 비율)을 빼주면 자금을 예금하거나 채권에 투자할 때 실질적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현재 시점에서는 물가상승률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물가상승률의 예상치(기댓값)를 사용합니다.

$$\text{명목이자율} = \text{실질이자율} + (\text{기대})\text{물가상승률}$$

실질이자율은 기업들이 공장과 기계설비를 구입하는 등 투자 규모를 결정할 때 중요한 참고 요인입니다. 가령 시중 이자율이 9%라도 물가상승률이 10%라면 실질이자율은 -1%가 됩니다. 경제경영연구소 임성택 연구원



시사용어 CHECK

명목이자율
시중은행에서 예금 상품을 팔 때 내세우는 일반적인 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음.

실질이자율
물가 변동을 고려한 이자율. 명목이자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다면 실질이자율은 마이너스.



국어는 결국 독해력, 무슨 책이든 많이 읽어라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초·중등 시절부터 수학이나 영어에 우선순위가 자꾸만 밀리다 보니 실속을 챙기기 쉽지 않은 과목이 바로 국어이다. 우리말, 우리글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왜 점수는 자꾸만 떨어지는지. 뒤늦게 국어에 신경을 좀 써볼까 싶지만 이미 손쓰기 쉽지 않은 상태에 접어든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험담들에 경각심을 느끼게 되어서인지, 요즘은 일찍부터 국어 공부에도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국어 공부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보자.



이수민 강사의
국어 클리닉

Q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나요?
'교과서로 공부했어요'와 같이 너무나도 당연한, 원론적인 이야기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많은 글을 읽은 학생들이 당연히 국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독서가 일상에 녹아들어 있는 학생의 경우, 언제나 국어 교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SNS, 영상 매체들과 거리를 두고 틈나는 대로 꾸준히 읽는 습관을 들여보도록 하자. 활자와 가까워질수록 국어 교과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Q 어떤 책을 읽어야 하나요?
'텍스트'라면, 무엇이든 전부 도움이 된다. 극단적으로는 만화책을 수백 수천 권 읽는 것 역시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만화책에 빠져 1년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화책을 독파한 학생의 국어 모의고사 점수가 수직 상승한 케이스도 존재한다. '무언가 잘 정돈된, 멋지고 어려운 글'을 읽어야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환상을 깨자. 고리타분한 글을 집어 들고 '역시 글 읽기는 지겹고 재미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볍고 쉬운 글부터 읽어나가면서 읽는 재미를 느껴보면 좋겠다. 관심 분야의 잡지나 기사, 칼럼, 동화책, 역사서, SF 소설 등 무엇이든 좋다. 조금씩 읽다 보면 차차 텍스트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어느새 읽기는 습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억지로 읽는 것보다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Q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국어 교과와 연계된 책을 읽어야 좋겠죠?
이미 다른 교과 학습에 빚눌려 시간이 없고, 겨우겨우 시간을 쪼개어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소설 작품부터 접해보기를 추천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들,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요 작품들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자. 재미는 물론이고 '국어 시험 점수'까지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작품 전문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품이 문제로 출제되었을 경우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Q 중요 문학 작품들 말고, 비문학 글은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이 역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국어 교과서 외 다

른 교과서를 쪽쪽 읽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다. 각 과목의 교과서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의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내신 시험을 준비하느라 요약·정리 강의 등을 통한 암기 방식의 학습에 익숙해서 모르고 있을 뿐이다. 교과서 읽기를 통해 교과 학습은 물론 독해력 향상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셈이다.

고1~고2 모의고사에 출제된 지문들을 하루에 한 편씩 꾸준히 읽어나가는 방법도 추천한다. 문단별 주요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바랄 것이 없다. 미리미리 모의고사에 출제된 여러 텍스트들에 익숙해지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받을 동동 구르지 않고 수월하게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반복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자신감이 붙을 것이다.

Q 한자 공부를 반드시 따로 해야 하나요?
한자를 많이 알고 있다면 여러모로 국어 공부에 도움이 된다. 한자어에 대해 공부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높아질수록 어휘력 부족으로 인해 글 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고등학교 진학 이후 더욱 심화된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많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충분히 익혀나가는 방법을 더욱 추천한다. 여러 문맥들을 통해 다양한 어휘들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수 있다면, 어휘력은 물론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글 읽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Q 초·중등 때부터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하나요?
문제 풀이나 텍스트 읽기 연습이냐에 대한 논쟁은 수능 시험을 보는 그날까지 계속하게 될 것이다. 당장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 풀이 비중을 당연히 높여야겠지만, 흔들리지 않는 국어 실력을 위해서라면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의 학습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학습으로는 수능 3~4등급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목표가 그 이상이라면, 일찍부터 학습 방향성을 잘 잡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고1·2는 물론 초·중등 시절의 문제 풀이는 더더욱 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학습이 아님을 잊지 말자. 국어 교과의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일찍부터 다양한 텍스트를 꾸준히 읽어나가도록 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강사



- 1 국어 공부, 일찍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 2 쉽고 가벼운 글부터 시작해 읽기 자체에 흥미 붙이자
- 3 문제 풀이 훈련은 독해력 갖춘 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영작의 감각을 키워라... 전치사 with 활용법



주혜연 강사의
영어특강

‘전치사’는 문장에서 명사나 대명사의 위치와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인데 영어는 특히 전치사가 발달한 언어이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려면 전치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치사를 적절히 사용하면 복잡한 문형 없이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전치사 하나로 문장의 뉘앙스나 의미가 크게 변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전치사 ‘with’를 깊이 이해해서 자연스러운 영어 구사에 한 걸음 다가가 보자.

① 소유의 전치사 with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 아이이다.

이 문장을 영작할 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고의 과정을 거친다.

그는 아이이다=He is a child.

그는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다=He has a rich imagination. (He 대신 관계대명사 who를 사용해 두 문장을 연결해야지)

** He is a child who has a rich imagination.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문법적으로도 올바른 문장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전치사 with를 활용하면 원어민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현에 가까운, 더 간결한 문장으로 고쳐볼 수 있다.

영작 꿀팁 1 사람의 특성을 표현할 때는 전치사 with를 사용하자.

그는 아이이다 = He is a child.

풍부한 상상력을 지닌=with a rich imagination.

** He is a child with a rich imagination.

이렇게 사람이 갖는 특성을 전치사 with를 사용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그녀는 대단한 인내심을 지닌 교사이다’를 영작해보자. ‘대단한 인내심을 지닌’을 with great patience로 간단하게 바꿔, ‘She is a teacher with great patience’라고 영작할 수 있다.

영작 꿀팁 2 사물의 특성이나 부속물을 표현할 때도 전치사 with를 사용하자.

그는 은색 단추가 달린 재킷을 입었다.

이 문장을 영작할 때, 영작 초보자는 ‘달린’이 영어로 무엇일까 고민할 것이고, 중급자는 have 동사를 활용해 ‘having silver buttons’, 상급자는 전치사 with를 활용해 ‘with silver buttons’라고 표현할 것이다. 이처럼 전치사 with를 사용하여 사람이 가진 특성뿐 아니라, 사물

의 특성이나 부속물도 나타낼 수 있다.

그는 재킷을 입었다=He wore a jacket.

은색 단추가 달린=with silver buttons

** He wore a jacket with silver buttons.

같은 요령으로 ‘나는 창문이 섀팅된 차를 샀다’도 영작할 수 있다. ‘I bought a car whose windows are tinted’라는 길고 복잡한 표현 대신, 사물의 부속품을 나타내는 전치사 with를 활용하여 ‘I bought a car with tinted windows’라고 말할 수 있다.

② 조건과 이유의 전치사 with

이 교통체증 때문에,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

이 문장을 영작하기 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풀어 나가게 된다.

이 교통체증 때문에=Because of all this traffic jam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we’ll never be able to arrive on time

** Because of all this traffic jam, we’ll never be able to arrive on time.

영작 꿀팁 3 조건과 이유는 전치사 with로 표현해 보자. 자,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간결하게 고쳐보자. 우선, 이유를 나타낼 때 반드시 because (of)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전치사 with를 사용해도 조건이나 이유를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이 교통체증 때문에=with all this traffic

‘특정 장소에 도착하다’라는 의미의 make it이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볼 수 있다.

우리는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야=we’ll never be make it on time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조건과 이유를 전치사 with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다양한 문장에서 적극 활용해보자.

이투스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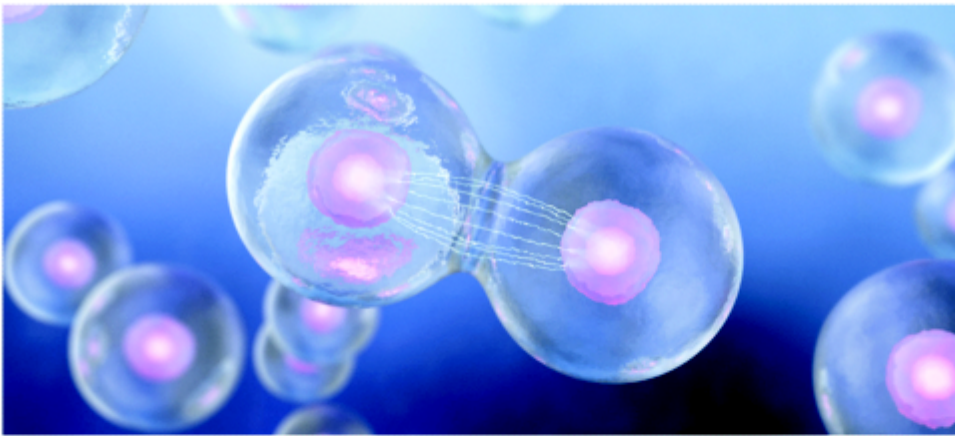


핵심포인트!

- 1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전치사 with
- 2 사물의 특성이나 부속물을 표현하는 전치사 with
- 3 조건과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with



닮은 듯 닮지 않은 형제...세포분열이 원인



세포는 세포 주기에 따라 성장과 분열을 거듭한다. 세포 분열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이승후 강사의
과학탐구 특강

우리 몸은 약 60조개 세포로 구성돼 있다. 하나의 수정란이 몇 번이나 분열해 이렇게 많은 세포가 생긴 것일까? 세포 분열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을 것 같지만, 겨우 45회 정도 분열한 결과다. 약 30회 분열에 10억개, 40회 분열을 마치면 약 1조개 세포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45회 분열한 다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다. 뇌세포와 같은 일부 세포를 제외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증식하여 낡고 손상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교체한다. 예를 들어 음식물과 늘 직접적으로 접하는 위 점막 세포는 3~4일마다, 피부 세포는 약 4주마다, 적혈구는 약 4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세포는 일정 기간 성장해 분열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한다. 성장하는 동안 세포는 핵 속에 존재하는 유전 물질인 DNA를 복제한다. DNA를 포함해 분열에 필요한 물질이 준비되면 세포는 분열을 시작하는데 핵이 먼저 분열하고 세포질이 둘로 나뉘는 과정을 거쳐 두 개의 딸세포를 형성한다. 이때 복제된 DNA를 두 개의 딸세포에 똑같이 분배하게 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 알아보자. 세포는 세포 주기에 따라 성장과 분열을 거듭하는데 분열에 해당하는 단계가 바로 체세포 분열이다.

감수 분열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 과정이다. 감수 분열은 생식 세포를 형성할 때 배우자 속에 자신의 염색체 수가 절반만 들어가도록 해 수정 결과 자손의 염색체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감수 분열을 통한 유성 생식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유전적 다양성이란 자손이 부모와 다른 유전적 조성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 아래에서 자손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사람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부모와 자식 사이 또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닮은 이유는 생식 과정을 통해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았고 이 염색체에는 부모님의 대립 유전자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식 세포가 분열할 때 각각의 상동 염색체 쌍에 들어 있는 대립 유전자 쌍이 무작위로 분리된다. 같은 염색체에 연관된 유전자들 사이에 때때로 교차가 일어나면서 아버지로부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정자가, 어머니로부터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난자가 만들어진다.

다양한 유전자 조합의 생식 세포 중 단 1개의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로 수정돼 우리가 태어난 것이므로 우리는 부모님과 다른 형질을 가질 수 있다. 즉 생물은 유성 생식을 통해 같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을 낳을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생물들 간의 유전적 다양성은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태어나는 아이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 누구나 똑같다. 나이가 많은 임신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데, 현재 많이 행해지는 검사 중 하나가 양수 검사다. 양수란 태아가 자라고 있는 자궁 내에서 완충 작용을 하는 체액을 말한다. 양수 속에는 태아에게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존재하므로 양수를 긴 주삿바늘로 채취해 태아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태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분열 중인 세포의 염색체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염색체의 형태, 크기, 수의 특징을 살펴보는데 이를 핵형 분석이라고 한다.

핵형은 생물학적 종에 따라 모두 다르다. 동일한 생물학적 종이라도 염색체 수가 증가하거나 적어지는 등 이상이 생기면 핵형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람은 정자와 난자로부터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으므로 한 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존재한다. 염색체 이상은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염색체 수 이상과 염색체 수는 정상이나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으로 나뉜다. 이투스강사



- 1 생물은 감수 분열과 유성 생식을 통해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킨다.
- 2 핵형은 염색체의 형태, 크기, 수의 특징을 의미한다.
- 3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과 염색체 이상을 알 수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시행... 고1부터 내신관리 철저히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내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이들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체계 개편 등에서 굵직한 변화들이 예고돼 있다.

3년간 총 192학점 취득해야 졸업 인정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과정 편성에서부터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이렇게 개설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은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수업을 듣고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되면 학점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단위 개념인 교과 이수 기준이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점으로 바뀐다. 1학점은 16회 수업으로 3년간 교과 174학점, 창의적 체험 활동 18학점을 더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과목 선택권 확대되지만 대입 고려해야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년 때는 모두 같은 공통 과목을 이수하고,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이수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이 체감하는 선택권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별 과목 개설 여건, 최소 신청 인원 등에 따른 폐강 등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입이다. 대학 혹은 전공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과목을 배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전공별로 필수 이수 과목과 이수 권장 과목을 정해두고 있고, 실제 평가에서도 중요하게 반영되고 있다. 이를 이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합격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 이수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특히 자연계열에서는 대부분 모집단위에 각각의 전공에 연계되는 권장 과목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계열에서는 경제 등 일부 모집단위를 제외하고는 권장 과목을 지정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 과목 이수를 권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5학년도 주요 대학 전공 연계 과목 예시

전공	서울대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경제	(권장) 미적분, 확률과 통계	-
기계공	(핵심) 물리Ⅱ, 미적분, 기하 (권장) 확률과 통계	(핵심) 미적분, 기하, 물리Ⅰ / Ⅱ, 화학Ⅰ (권장) 확률과 통계, 화학Ⅱ
생명과학	(핵심) 생명과학Ⅱ, 미적분 (권장) 화학Ⅱ, 확률과 통계, 기하	(핵심) 화학Ⅰ, 생명과학Ⅰ / Ⅱ (권장) 미적분, 확률과 통계, 화학Ⅱ
의예	(핵심) 생명과학Ⅰ (권장) 생명과학Ⅱ,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핵심) 미적분, 화학Ⅰ, 생명과학Ⅰ / Ⅱ (권장) 확률과 통계, 물리Ⅰ, 화학Ⅱ

내신 5등급제 개편으로 1등급 대폭 확대

현재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 과목을 응시하는 선택형 수능이다. 그런데 2028학년도부터는 아예 모든 학생이 동일한 과목에 응시하는 통합형 수능이 실시된다.

2028학년도 통합 수능 영역별 출제 과목

구분	현행(~2027학년도)	개편(2028학년도~)
국어	공통(독서, 문학)+택1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공통(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
수학	공통(수Ⅰ, 수Ⅱ)+택1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탐구	17과목(사회9과목, 과학8과목) 중 택2	공통(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어는 현재 선택 과목이 모두 출제 범위에 포함돼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출제된다. 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만 수능 출제 범위로 현재 문과 학생들의 범위와 유사하다. 미적분Ⅱ, 기하는 심화수학으로 절대평가가 논의되었지만 최종 제외됐다.

탐구는 사회와 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고 현재는 사탐과 과탐 17과목 중 2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응시하지만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모두 치르게 된다.

내신 체제도 개편된다. 현행 고교 내신은 9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1등급은 4%에서 10%로, 2등급은 누적 11%에서 누적 34%로 크게 늘어나 현재의 2등급 수준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대입에서 내신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8학년도 수능 등급 [향후(2025~)]

등급	누적 비율
1등급	~10%
2등급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고1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대학 향방 갈라

2026학년도 기준으로 전형 유형별 선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대학에서는 교과와 종합 전형 비중이 68.6%로 학생부 전형 비중이 매우 높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에도 교과 10.8%, 종합 34.5%, 총 45.3%로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다. 대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생부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되면 1등급이 10%가 되어 크게 늘어난다. 현 내신 9등급제(1등급이 4%, 2등급이 누적 11%)하에서 주요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부 전형 합격선은 일반고 기준 1등급대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개편 이후에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만 상위권 대학 학생부 전형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1학년 때부터 내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로에 대한 탐색도 활발하게 해야 한다. 2학년 선택 과목은 1학년 2학기 때 결정하기 때문에 수강신청 전까지 자신의 진로 분야를 어느 정도 찾아나가는 것이 대입에서 유리할 것이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장



남윤곤 소장의
대입 완전정복

손품 팔수록 이자 두둑... '종잣돈 통장' 찾아볼까

재테크는 쉽게 말해서 돈을 관리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즉 주수입원이 되는 본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덩치가 크면 클수록 더 안정적으로 불릴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00만원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볼까요? 반 년 만에 100%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식 중에서도 화끈한 테마주나 작전주, 아니면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선물 옵션 투자를 성공해야 합니다. 대신 이런 방식의 투자는 수익은 커녕 원금까지 날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1억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1억원으로 1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 수익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ETF나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분산 투자를 하거나, 그것도 불안하면 그냥 은행에 맡겨두면 됩니다.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선택의 여지가 많고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테크 출발에서 '종잣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년간 은행을 떠나지 말라

'0원'에서 시작하는 재테크 초보자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무조건 은행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정해진 이자를 받으며 차곡차곡 목돈을 쌓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투자에 대해 공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은행 예적금은 재테크 실력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이자를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초보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은행 적금을 하는 3년 동안 재테크 공부를 착실하게 해놔야 합니다. 3년 후 마련된 종잣돈은 어디에 투자할 건지, 그리고 그때부터 생기는 여윌돈으로 다시 은행 적금을 들 건지, 아니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 투자를 할 건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잣돈을 모으는 3년 동안 성장률이나 물가, 금리에 관한 뉴스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경제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손품 많이 파는 사람 못 이겨

은행 예금은 처음 약속한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할 때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주는 예금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금은 그냥 은행 가서 들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지역 농협, 수협마다 이자 차이가 생각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특관예금 형식으로 나오는 상품까지 고려하면 금리 차이는 더 커집니다.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에 가면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가입하는 예금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를 좀 더 줍니다.

세금만 줄어도 이게 얼마야?

은행 금리가 높은 예금을 골랐다면 다음으로 이자에 붙는 세금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소득세 14%에 주민세 1.4%를 합해서 총



게티이미지뱅크



허서운 기자의
틴재테크 첫걸음

15.4%의 세금을 자동적으로 떼어 갑니다. 만약 이자로 40만원을 받았다면 실제 통장에는 33만8400원만 들어오는 거죠. 좀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래도 세금을 깎아주는 다양한 제도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면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만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1000만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9%와 농어촌 특별세(농특세) 0.5%만 내면 됩니다. 세금우대를 활용한다면 이자가 40만원인 경우 36만2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2만3600원을 더 챙길 수 있죠.

다음으로 제1금융권이 아닌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단위수협 그리고 신협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보통 1만원 내외)을 납입하고 조합원에 가입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농특세 1.4%만 내면 됩니다. 이자 40만원에 대해 56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까 실수령액이 무려 39만4400원이 되는 거죠. 좀 번거로우도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ETNETF로 승부하라' 저자



시사용어 CHECK

88클럽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데 이 중 자본 상태가 탄탄한 은행을 고르는 지표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익여신비율이 8% 이하인 저축은행을 말한다.

투자자들 떨게 한 ‘증시 핵폭탄’ 엔 캐리 청산



쉽게 풀어쓰는 경제뉴스

지난 3월 일본 중앙은행(BOJ)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경기가 개선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이 강해지자 통화정책 방향성을 과감히 전환한 것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행은 4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내놓자 오랜 기간 약세를 지속해온 엔화 가치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파로 일본 증시는 사상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가 다음날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종말의 의미

지난 3월 일본은 8년간 지속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하고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는 2016년 2월 구로다 하루히코 전 일본은행 총재가 도입한 정책입니다. 1990년대 거품경제 붕괴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와 함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유증으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 고착화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내리면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기도 하는 저렴한 빌려가게나 기업에 대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돌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를 내고 돈을 맡겨야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은행도 이러한 반발을 감안해 모든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 5% 정도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책정했습니다. 나머지 예금에는 제로금리나 연 0.1%의 초저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란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란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린 후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뜻합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Yen carry trade)는 금리가 낮은 일본 엔화를 차입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다른 나라의 통화에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일본 엔화는 캐리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통화가 되었죠. 엔 캐리 트레이드는 환율 흐름에까지 영향을



일본 닛케이지수가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한 지난달 5일 한 남성이 현황판을 촬영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쳐 세계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기도, 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확대되면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됩니다. 반대로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면 엔화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 폭락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기도 합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증시에 미친 영향

일본은행이 매파(긴축 선호) 기조를 강화하자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이어졌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는 각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지난달 5일 4451포인트 폭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토픽스(TOPIX)지수도 이날 12.2% 떨어졌는데요. 오사카증권거래소는 토픽스 선물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했습니다. 토픽스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이래 처음입니다. 증시가 크게 출렁거리자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금융·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현재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확실하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발언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도연 인턴기자



사진렌즈 속 세상읽기

영화가 현실로... 상업 우주비행 시대 열렸다



사상 최초의 민간인 우주 유영 도전이 성공으로 마무리됐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폴라리스 Dawn’(Polaris Dawn) 임무를 이끄는 역만장자 제러드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우주 유영 시도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생중계된 우주 유영 장면을 보면 아이작먼은 우주복을 열어 문 열고 우주로 몸을 내밀었다. 그는 해치에 부착된 난간 형태 구조물을 한손으로 잡은 채 730km 고도에서 시속 2만5000~2만6000km로 움직이는 우주선 위에 홀로 섰다. 칠흑같이 어두운 우주와 밝게 빛나는 푸른 지구가 동시에 펼쳐지는 장관이 연출됐다. 인류 역사상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스페이스X는 “상업 우주비행사가 상업용 우주선으로 우주 유영을 완료한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스페이스X



숏폼중독이 팝콘브레인 유발

광남중학교 2학년 배민서

짧은 동영상 콘텐츠 ‘숏폼(Short-form)’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30대 이하 Z세대를 중심으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을 즐겨보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숏폼을 지나치게 소비하면 마약과 같은 중독 현상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번 사용하면 헤어 나오지 못하는 마약의 속성처럼 숏폼도 중독 현상을 일으킨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중독 현상을 ‘팝콘 브레인’이란 용어를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팝콘 브레인은 데이비드 레비(David Levy) 미국 워싱턴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만든 용어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에 노출되면 뇌의 전두엽이 반응하는데, 반복 노출될수록 내성이 생겨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고 팝콘 터지듯 더욱 큰 자극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해서 붙여졌다.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우울, 불안, 충동적인 감정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 저하와 같은 인지 기능 감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집중력 저하와 문해력 저하 현상은 숏폼 중독에 의한 팝콘 브레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리의 집중력을 지키려면 숏폼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숏폼 중독 예방 교육과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때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유감

광남고등학교 1학년 우민영

정부가 2025년부터 종이 교과서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로 대체하겠다는 단계적 개혁안을 발표했다. 2028년에는 모든 과목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학생들을 위한 선택일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시도한 나라로 스웨덴이 있다. 스웨덴은 2017년 유치원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로타 에드홀름 교육부 장관이 종이책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를 모두 백지화시켰다.

디지털 교과서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문해력이 저하된다. 2021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3%가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원인으로 ‘디지털 노출’을 꼽았다. 이 같은 이유로 프랑스와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 등도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집중력이 저하된다. 요한 하리의 저서 ‘도둑맞은 집중력’에서는 ‘미국인 10대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65초 이상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사용으로 인한 멀티태스킹을 집중력 저하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계속되는 땅 꺼짐, 예방책 시급

경안중학교 3학년 박지우

서울 연희동 땅 꺼짐 사고 이후 서울 고려대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다시 나타났다. 인천 서구 가정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도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모두 957건으로,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쳤으며, 차량 78대가 파손됐다.

땅 꺼짐 사고는 왜 급증하는 것일까. 자연적 원인과 인공적 원인을 들 수 있는데 국내 땅 꺼짐은 대부분 인공적 원인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노후화된 상하수관을 들 수 있다. 노후 상하수관에서 새어나온 물 때문에 흙이 흘러나가 빈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상하수관 40만9000여 km 중 노후화된 구간은 40%에 달한다. 이 밖에 다짐 불량, 굴착 공사 부실과 날씨 영향도 크다.

땅 꺼짐 예방책으로는 사전 지반 탐사가 효과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반 탐사 안전점검 요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는 8대에 불과하다. 서울시 지표투과레이더 장비를 활용한 도로 점검은 ‘수박 걸랄기’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이 장비를 통해서도 지표면 3-4m 아래까지만 감지할 수 있어 실제 효과가 거의 없다.



공시생 줄고 전문직 시험 열풍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학년 박수빈

최근 공무원시험 준비생(공시생)이 감소하고 전문직 응시생이 증가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공시생이 감소한 것은 높은 근무 강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직업 안정성 감소,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때문이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정책 변화가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켰다.

전문직 선호가 높아진 것은 연봉이 높고, 경력 개발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응시생들도 전문직을 선택한 이유로 전문성과 높은 수입, 직업 만족도, 교육 및 훈련 기회 부여 등을 꼽았다. 특히 정보기술(IT), 의료, 법률 분야 전문직은 지속적으로 많은 소독을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많은 이들이 전문직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직업 선택이 가능하다. 젊은 세대가 공무원과 같은 전통적인 직업보다 더 많은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 또한 경제 상황이 직업 선택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경제가 불황일 때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가 호황일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고 전문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한국 노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인번호 : 기획재정부 제2021-201호

등록번호 : 2012-0277호

48회

타임매경계 TEST

시험일

2024년 10월 19일 (토)

접수기간

9월 2일(월)~10월 7일(월)

자격명 : 경제금융이해력인증시험(타임매경TEST) | 자격의 종류 : 국가공인민간자격(A+,A,B) / 등록민간자격(C,D)
 응시료 : 2만원 | 환불규정 : 정기접수 마감일까지 환불 신청시 응시료 전액 환불(송금수수료 제외). 정기접수 마감일 이후 환불 불가
 발급기관 : 매일경제신문사 | 대표자 : 장대환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0(매경미디어센터)
 연락처 : 02-2000-2469 | 홈페이지 : <http://mktest.org> | 이메일 : mktest@mk.co.kr